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의 교유시(交遊詩) 연구 — 지식인들과의 교유 양상을 중심으로*

김 묘 정**

[초 록]

이 글은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의 교유시(交遊詩)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지식인들과의 교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에 첫 번째 특징으로는 송시(送詩)·증시(贈詩)에서 확인되는 진실한 교유 양상을 들 수 있다. 시적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한 내용이 내재되어 있기에 곤륜이 친밀한 교유 관계를 바탕으로 작시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모임을 통한 시우(詩友)와의 시적 소통 양상을 확인하였다. 곤륜은 시적 교유가 가능한 지식인들과 수창하며 연구시(聯句詩)를 창작했는데, 교유 인물이 소론계 지식인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님을 밝혔다. 더 나아가 작시 시점이 만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포착하고 담박한 교유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는 동일 공간 유람에서 비롯된 흥취의 공유 양상을 고찰하였다. 교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180).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소 연구보조원

주제어: 곤륜 최창대, 소론, 지식인, 교유, 교유시
Gollyun Choe Changdae, Soron, Intellectual, Friendship, Friendship Poem

지식인과 유람을 기약하고 이행하는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동행하며 산수 지취를 공유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1. 머리말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 1669-1720)는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의 증손이자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의 아들로 소론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는 최창대 개별 문인에 대한 규명으로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당대 지식인과의 교유 관계 속에서 시문학이 유기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다.¹⁾ 교유 관계가 일부 다뤄진 바 있으나,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된 친분 및 친인척과의 우애 양상이 단편적으로 조망되었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연구에 머물렀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곤륜의 교유시를 개관하고 그 안에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모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식인²⁾과의 시적 교유 양상을 살핌으로써 그의

-
- 1) 최창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불교수용 양상을 밝힌 연구, 학문사상과 수사론에 관한 연구, 삶과 시세계를 조망한 연구, 문장론을 분석한 연구 성과가 있다. 유호선(2002), 「17C 후반~18C 전반 경화사족의 불교수용과 그 시적 형상화: 김창흠, 최창대, 이덕수, 이하곤, 조귀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79. 김영주(2003), 「곤륜 최창대의 수사론 연구」,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학회 pp. 115-139. 성범중(2010), 「곤륜 최창대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4, 한국한시학회, pp. 5-40. 권진옥(2018), 「곤륜 최창대의 문장론 연구」, 『동양고전연구』 74, 동양고전학회, pp. 7-34.
 - 2) 이 글에서는 곤륜과 교유했던 인물들을 ‘지식인’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자 한다. 곤륜의 교유 관계도를 살펴보면 소론·노론을 비롯해 중인 계층까지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포괄적 개념의 용어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음을 밝힌다. 또한 지식은 대체로 언어와 문자라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지식인은 학습과 실천을 통해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확립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기에(윤재환(2018), 「성호학과를 통해 본 조선후기 지식 집단의 형성과 변모의 한 양상」, 『고전과 해석』 26,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p. 239.) 시적 교유가 가능하다는 측면, 그리고 지적 활동 수준의

시세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도록 하겠다.

이에 실질적 관계망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교유시의 범주를 송시(送詩)·증시(贈詩), 연구시(聯句詩), 동~부(同~賦) 형태의 작품으로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³⁾ 그에 따라 2장 1절에서는 곤륜이 송시·증시를 창작해 시적 대상과 친밀한 교유를 이어나갔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송별시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기본 정조로 삼는 것이 보편적인 양상이나, 전거의 사용 빈도가 낮고 상투적인 이별의 정서보다는 개인적 감정에서 파생된 정한을 시적으로 형상화 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시적 대상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곤륜이 진정한 교유 관계를 근간으로 작시했음을 볼 수 있다. 2장 2절에서는 연구시에 드러나는 수창이라는 표면적 현상을 토대로 교유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모임이 가지는 의미와 특징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병행해 의미를 찾고자 한다. 2장 3절에서는 동일 공간 유람에서 비롯된 흥취의 공유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곤륜 작품의 시제에는 유람하는 장소와 동행하는 인물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와의 관계를 밝히는 동시에 유람시의 시적 성취도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 글에서는 곤륜 교유시의 다각적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그의 시세계 일부를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다.

높았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지식인’이라고 지칭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시를 함께 창작했던 교유 문인의 경우 지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정치적 동질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명확히 지식인 집단이라고 논의할 수 있다.

- 3) 교유시로는 직접적인 교유가 포착되는 형식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간접적인 교유만으로도 작시할 수 있는 挽詩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밖에 간접 교유와 직접 교유 양상이 혼효되어 있는 次韻詩는 여타 교유시의 교유 지식인과 중복되는 경우 각주를 달아 함께 다루었다. 곤륜의 차운시는 원운시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두보시를 차운한 경우, 교유하며 차운시를 창작한 경우로 나뉘는데, 교유의 경위가 확인되는 차운시가 양적으로 적을뿐더러 교유했던 인물이 여타 교유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인과 중복되므로 별도의 장을 만들어 다루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2. 곤륜 교유시의 몇 가지 특징

2.1. 송별의 정한 토로와 진실한 교유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송시(送詩)·증시(贈詩)는 수신자가 명확한 형식이기에 기본적으로 곤륜의 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르이다. 실제로 양적으로 많은 수의 작품이 송별(送別)·기증(寄贈) 과정에서 창작되었으므로 곤륜이 관계 맺어온 다양한 지식인들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이에 곤륜의 송시·증시 목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곤륜 최창대의 송시·증시 목록

순번	교유 지식인	관향	제목	종류	수량	형식	권 수
1	南九萬	宜寧	送藥泉南相國謫慶興	送詩	1	五言律詩	권1
2	沈齊賢	靑松	送沈思仲謫嘉林	送詩	1	五言排律	권1
3	沈齊賢	靑松	簡寄思仲	贈詩	1	五言絶句	권1
4	洪重聖	豊山	寄洪君則	贈詩	1	五言排律	권1
5	李光佐	慶州	寄李尙輔	贈詩	1	七言律詩	권1
6	李夏英	全州	歸到松京 路遇李益之書贈	贈詩	1	五言律詩	권1
7	李泰翼	未詳	曉發郡城 別李大來	送詩	1	五言律詩	권2
8	李寅燾	慶州	送伯舅之任杆城	送詩	1	七言律詩	권2
9	權喜學	安東	送權生喜學還鄉	送詩	1	五言律詩	권2
10	延世華	谷山	贈別延聖輝	贈詩	1	七言律詩	권2
11	李挺天	全州	問月亭歌 寄李山人	送詩	1	七言排律	권2
12	尹坪	海平	送戚大父尹公出宰高城	送詩	1	五言排律	권2
13	權緯	未詳	南江歌別權汝經	送詩	1	七言排律	권2
14	李光佐	慶州	送尙輔歸驪江	送詩	1	七言律詩	권2

순번	교유 지식인	관향	제목	종류	수량	형식	권 수
15	崔後章	全州	送琴翁往忠州	送詩	1	五言律詩	권2
16	沈齊賢	青松	送思仲還加林	送詩	1	五言律詩	권2
17	趙光璧	豊壤	送趙生光璧還鄉	送詩	1	七言律詩	권2
18	宋明淵	礪山	送宋叔德章歸泰仁	送詩	3	五言排律	권2
19	吳泰周	海州	寄海昌吳都尉	贈詩	1	七言律詩	권2
20	洪受疇	南陽	送洪參議赴燕	送詩	1	五言律詩	권2
21	洪世泰	南陽	送道長南行	送詩	2	五言律詩	권2
22	崔奎瑞	海州	送少陵崔參判副使之燕	送詩	4	五言排律	권2
23	李德成	全州	茯苓歌 寄茂朱李使君	贈詩	1	七言排律	권3
24	李東旆	驪興	送江界李使君	送詩	1	七言律詩	권3
25	李坦	全州	送李書狀君平	送詩	1	七言律詩	권3
26	朴乃貞	咸陽	到金城 留贈朴使君直卿	贈詩	2	五言律詩	권3
27	姜履相	晉州	遙贈姜書狀之燕	贈詩	2	七言絕句	권3
28	洪萬恢	豊山	送洪丈出宰赤城	送詩	2	五言律詩	권4
29	元聖俞	原州	送元丈之任鍾城	送詩	1	七言律詩	권4
30	宋宅相	恩津	送宋公舒佐幕咸興	送詩	3	七言絕句	권4
31	元聖俞	原州	送元丈出宰尙州	送詩	1	七言律詩	권4
32	李台佐	慶州	送李評事國彦	送詩	1	七言律詩	권5
33	李夏英	全州	雪天夜飲 送益之還高峰	送詩	2	五言律詩	권5
34	宋正明	礪山	送宋子和赴北幕	送詩	1	七言律詩	권5
35	金致龍	彦陽	送金義州	送詩	1	七言律詩	권5
36	趙泰億	楊州	送趙大年奉使日本	送詩	2	七言律詩	권5
37	任守幹	豊川	送任用譽奉使日本	送詩	2	七言律詩	권5
38	李眞儒	全州	送李士珍出宰堤川	送詩	1	七言律詩	권5
39	沈壽淩	青松	送沈慶山	送詩	1	五言排律	권5
40	尹游	海平	送尹伯修游之任鎭川	送詩	2	七言律詩	권5
41	朴乃貞	咸陽	送南原朴使君直卿	送詩	1	七言律詩	권5
42	李眞儒	全州	送李士珍仲約遊楓嶽	送詩	6	七言絕句	권5

곤륜의 송시·증시 목록을 분석해보면, 총 42제 62수로 전체 작품 대비 9%에 해당한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칠언율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에도 배율(排律)이나 연작(連作) 형태로 창작되어 편폭 측면에서 작품이 장편화 된 특징을 보인다. 교유 관계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소론계 지식인에 해당하며, 수신자가 중첩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에 넓은 범주의 인물들과 교유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내용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비롯해 외직(外職)에 부임되거나 사신의 임무로 연경·일본으로 떠나는 이를 전송한 작품이 다수 확인된다. 그 밖에도 유배 가는 것을 전송하거나, 유람 가는 이 혹은 승려에게 준 작품도 포착된다. 이에 내용이 유사한 작품을 그룹화 하여 곤륜 교유시의 특징적인 면모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1)

悵悵江南別	강남에서의 이별 서글픈데
天涯草復春	하늘 끝 풀에는 다시 봄 들었구나
如何遲暮日	어떻게 하면 저무는 해를 더디게 하여
長作倦遊人	오랫동안 떠다니는 사람 게으르게 할 수 있을까
歲月空催老	세월은 부질없이 늙음을 재촉하는데
文章不救貧	문장으로서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臨邛猶樂土	임공 땅 되려 낙원 같을 테니
王令早相親	왕령과 일찍이 친해서지 ⁴⁾

(2)

一劍秋風色	칼 한 자루 차고 가을 풍경 속에서
明朝北出關	내일 아침 북쪽 관문으로 나아갈 텐데
殷勤故人別	정든 벗들과 이별하려니
悵悵酒杯間	서글퍼 술잔 기울이네

4) 崔昌大, 『昆侖集』 권2, <送道長南行>.

積雪行營獵 눈 쌓인 외지의 군영에서 사냥하고
愁雲六鎮山 시름겨운 구름 육진의 산에 떠 있겠네
那能攜數子 무슨 수로 그대들 몇 사람들과
踏遍大荒還 변방 땅 두루 다 밟고 돌아올 수 있으리⁵⁾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를 전송하거나, 본인이 외직에 부임하게 되어 이별하며 남긴 작품에 해당한다. 작품 (1)은 1697년에 남쪽으로 가는 홍세태(洪世泰, 1653-1725)를 보내며 지은 작품 2수 가운데 2번째 시를 인용한 것이다. 홍세태를 전송하는 소회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저무는 해를 더디게 하여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싶다는 표현에서 그의 내적 정서를 짐작할 수 있으며, 슬픔을 더욱 배가시키는 봄 든 날 이별 앞에 처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곤륜은 홍세태의 시문학적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홍세태의 삶에 대한 이해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곤륜의 여타 작품을 통해 홍세태와 시적 교유를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으며⁶⁾, 홍세태의 작품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⁷⁾

(2)는 1700년 무렵 곤륜이 북평사(北評事)에 부임해⁸⁾ 평안도 지역으

5) 崔昌大, 『昆侖集』 권3, <北征時道長載大等來別得山字>.

6) 崔昌大, 『昆侖集』 권1, <趙拙齋聖期宅同洪道長世泰得山字>, <待洪道長來道長時客關西>, <喜道長至得城字>, <閣夜同道長賦>, <郡齋同道長賦>, <示道長>, <病中與道長得兩絕>, <道長之扇弊汗不堪把以新易之數題舊扇>, <陪家君攜道長諸君訪龍鳳菴>, <道長將去攜上平遠堂>, <寄道長>. 『昆侖集』 권3, <卧病吟示道長>. 『昆侖集』 권5, <次道長韻>, <道長載大同至次老杜苦熱韻>, <鵲橋後日喜道長見訪用前韻>.

7) 洪世泰, 『柳下集』 권2, <鹽城郡齋聯句 明谷昆侖 各用手筆淨寫與之 今見在>, <題昆侖子哭柳太常詩後>, <昆侖學士座上用林字同賦>, <歸後用林字呈昆侖學士>, <夜來病枕無眠 忽憶昆侖令公從遊之樂 今不可得矣 且其奇才學識 未及展用於世 尤可痛惜 口占一律 朝起錄呈濟翁足下 幸和之>, <蒼槐子 一號昆侖 見邀卽席 用唐人韻同賦>, <夜宿昆侖第 與諸子話別 用孟襄陽韻>.

로 가게 되면서 홍세태와 이하곤(李夏坤, 1677-1724) 등을 송별하며 지은 작품 2수 중 1번째 시이다. 곤륜은 이하곤과 기본적으로 사촌지간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깊은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에는 북평사로 떠나게 된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 있는 동시에, 벗들과 이별해야 하는 슬픔이 담겨있다. 곤륜은 실제로 관서(關西)로 나아가 육진(六鎭)에 이르렀는데, 그 지역의 경물을 묘사함에 있어 자신의 감정을 투영시킨 작품을 다수 창작했다.⁹⁾ 이 시에서 곤륜은 벗들로 대변되는 홍세태와 이하곤 등의 지식인들과 함께 변방 땅을 두루 보고 올 날이 있을지를 되묻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정의 깊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홍세태와 이하곤은 곤륜의 집에 모여서 차운시를 짓기도 했으므로¹⁰⁾ 시문학적으로 교류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1)

相國去黃閣	상국께서 황각을 떠나시니
行行何所投	가고 가시다 어디에서 머무시려나
秋風動漢水	가을바람 한강에서 불어오고
落日下楊州	석양은 양주에서 지겠구나
關塞經綸遠	관새에서 경륜의 뜻 펼쳤는데
朝廷玉石憂	조정에서 옥석인지 근심했네
芝蘭自香氣	지초와 난초는 절로 향기로우니
霜霰不同謀	눈 서리가 범하지 못하리 ¹¹⁾

8) 이 시기에 곤륜은 六鎭을 다녀와 <邊城雜詠>, <六鎭歌>, <北征記> 등의 작품을 남긴 바 있다.

9) 崔昌大, 『昆侖集』 권3, <磨雲嶺>, <磨天嶺>, <鬼門關>, <登威關嶺>.

10) 李夏坤, 『頭陀草』 권6, <同道長益之會昆侖宅次杜詩苦熱韻二首>.

11) 崔昌大, 『昆侖集』 권1, <送藥泉南相國九萬謫慶興>.

(2)

君子有行邁 군자가 길을 떠나
 咄嗟臨路遠 탄식하며 큰 길에 임해있네
 所悲竟何事 슬퍼하는 것 끝내 무슨 일인가
 直道多險巇 곧은 도가 험난함이 많아서지
 封章辨朱紫 글을 올려 고관 변론하며
 未覺布衣卑 미천한 신분인 것 깨닫지 못했으나
 勤心護正路 마음 다해 정로 얻었으니
 小臣焉敢私 소신이 어찌 감히 사사로워서 이겠는가
 ... (중략) ...
 南北終風起 남북으로 바람 끊임없이 불고
 日色晦乾維 햇빛은 하늘에 어둑어둑한데
 不問離別苦 묻지 마시게 이별의 괴로움을
 但觀居者眉 단지 남은 사람의 미간을 보게나¹²⁾

두 번째로 살펴볼 작품 유형은 유배 가는 이를 전송하며 송별의 정을 시로 읊은 것이다. 이 역시 진실한 교유를 바탕으로 지어진 시라는 특징을 보인다. (1)은 소론의 영수인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1688년 60세에 경흥(慶興)으로 유배 가는 것을 전송한 시이다.¹³⁾ 유배지로 향하는 남구만에 대한 걱정을 표출했으며 조정에서 그를 옥석인지 가리다가 유배 보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했다. 미련에서는 남구만을 지초와 난초에 비유하고 눈과 서리로 대변되는 그 어떤 시련도 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의 곧은 지조를 강조했다. 곤륜은 남구만을 애도하는

12) 崔昌大, 『昆侖集』 권1, <送沈思仲謫嘉林>.

13) 이황진(2017), 「약천 남구만의 유배시 연구」, 『韓民族語文學』 75, 한민족어문학회, p. 114. 남구만의 두 번째 유배 경의를 살펴보면 숙종의 張貴人에 대한 총애가 극에 달하고, 宗人 東平君李杭이 惠民署提調로 임명되는 전례 없는 특별한 恩眷을 입게 되자 이조판서 南溪朴世采가 이에 대해 7월 13일 劄子를 올리지만 숙종은 노하여 그를 물리친다. 이에 약천이 朴世采를 비호하자 숙종이大怒하여 그를 유배시키도록 명한다.

만시(輓詩), 제문(祭文), 묘지명(墓誌銘)을 쓸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¹⁴⁾, 스승으로 삼았기에¹⁵⁾ 이와 같은 송별시를 작시한 것으로 보인다.

(2)는 심제현(沈齊賢, 1661-?)이 유배 가는 것을 전승한 작품으로 오언 배율 28구로 구성되어있다. 심제현은 1689년 29세에 유생의 신분으로 임금에게 울곡(栗谷) 이이(李珣)를 두둔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유배 가게 된 인물이다.¹⁶⁾ 곤륜 역시 당시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으므로¹⁷⁾ 동일한 처지에서 비롯된 각별한 애정을 기반으로 심제현에 대한 시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1~8구에서 곤륜은 유배지로 향하는 심제현의 험난한 상황을 드러낸 동시에 그의 처사를 곧은 도로 표현해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25~28구에서는 이별의 슬픔을 풍경으로 환치시킴으로써 괴로운 심경을 재차 드러내고자 했다. 이 작품 외에도 곤륜은 <심제현에게 편지를 보내다>(簡寄思仲) 시에서 “그대 떠난 이후로, 남쪽 성에 다시 가지 않는데. 그대를 생각함이 봄풀과 같아서, 없애버려도 또 다시 돌아나네”(自君之出矣, 不復出南城. 思君如春草, 除去還復生.)¹⁸⁾라고 읊었는데, 이를 통해보았을 때 실제로 곤륜은 심제현과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遠遊重行侶 멀리 노닐에 재차 같이 떠나시며
同心亮難遇 마음 함께하는 이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네

14) 崔昌大, 『昆侖集』 권5, <藥泉相國既致事 上留之母過江 親故亦多輓之 而公卒上章向琵琶潭 蓋大歸也 昌大竊嘗歎其義理之勇 老而不衰 因敬次相公題僧軸韻>, <藥泉南相國輓>; 『昆侖集』 권11, <上藥泉南相國>; 『昆侖集』 권15, <祭藥泉南先生文>; 『昆侖集』 권17, <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

15) 김영주, 「곤륜 최창대의 수사론 연구」,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학회, 2003, p. 118.

16) 『肅宗實錄』 卷20, 肅宗 15年 3月 17日 2번째 기사.

17) 1689년 곤륜은 牛溪와 栗谷이 輟享될 때에 상소하여 쟁론하다가 이 일로 見罰을 받고 科業을 포기하였다.

18) 崔昌大, 『昆侖集』 권1, <簡寄思仲>.

大使卽吾翁 대사인 우리 아버지와
 夙昔敦眷素 예전부터 본래 돈독하게 지내셨지
 長途半苦樂 긴 여정에 온갖 고생 겪으실 테니
 相待以朝暮 서로 아침저녁으로 마주하겠네
 氣和芝蕙薰 기운 온화해 지초 향기 퍼지고
 意適宮商喻 뜻이 부합해 온갖 가락에 기쁘니
 殷殷小子心 간곡한 소자의 마음
 庶寬晨夕慕 아침저녁으로 위로 받았네
 不用重祈祝 거듭 송축할 필요 없으니
 豈弟神必顧 화락한 군자는 신이 반드시 돌보신다네¹⁹⁾

세 번째로 살펴볼 작품 유형은 사신으로 떠나는 이를 전송한 시이다. 위의 인용 시는 1697년 연경으로 사신가는 최규서(崔奎瑞, 1650-1735)를 전송한 오언배율 4수 중 4번째 작품이다. 당시 연행을 개관해보면 최규서가 부사(副使)의 임무를 맡았으며 곤륜의 부친인 정사(正使)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을 비롯해 서장관(書狀官) 송상기(宋相琦, 1657-1723)가 동행했음을 알 수 있다. 1~6구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시의 대상인 최규서가 곤륜의 부친인 최석정과 이전부터 교유 관계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7~12구에서 곤륜은 최규서의 인품을 예찬하는 동시에 화락한 군자의 반열에 올려 사신가는 여정에 신의 감축이 함께할 것임을 말했는데, 이를 통해 최규서와도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앞서 [표 1]에서 정리한 바 있듯 곤륜은 사신 가는 이를 보내며 여타 시를 창작했는데 송서(送序)를 함께 남기기도 했다는 특징을 보인다.²⁰⁾

19) 崔昌大, 『昆侖集』 권1, <送少陵崔參判副使之燕>.

순번	교유 지식인	제목	내용	권 수
1	趙泰億	送趙大年奉使日本序 辛卯	1711년 일본으로 사신가는 조태억을 전송함.	권6
2	洪致中	送洪士能奉使日本序 己亥	1719년 일본으로 사신가는 홍치중을 전송함.	권6
3	李明彦	送李季通明彦奉使日本序	일본으로 사신가는 이명언을 전송함.	권6

2.2 모임을 통한 시우(詩友)와의 시적 소통

곤륜의 작품에는 몇 사람이 모여 구를 이어 가는 연구시(聯句詩) 창작 양상이 확인되므로 사교의 장 안에서 교유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시는 기본적으로 문학적 재능이나 학문적 수준이 비슷해야 완성도가 높아지는 장르이므로²¹⁾ 시적 교유가 가능한 지식인들이 수창하며 작시했다고 볼 수 있다. 곤륜 문집에서 확인되는 연구시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곤륜 최창대의 연구시 목록

연구시 참여 지식인	연구시 제목	형식	권 수
崔昌大, 李世德, 李肇, 宋正明	冬夜春坊聯句	五言(64구)	권5
崔昌大, 李世德, 李肇, 宋正明	頒柑聯句	五言(128구)	권5
崔昌大, 李肇, 宋正明, 李眞儒, 李眞儉, 尹聖時	春坊夜集聯句	五言(72구)	권5
崔昌大, 李夏坤	石硯聯句三十二韻	五言(64구)	권5
崔昌大, 李夏英, 李明坤	冬夜同益之範姪聯句	五言(80구)	권5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곤륜은 이세덕(李世德, 1662-1724), 이조(李肇, 1666-1726), 송정명(宋正明, 1670-1718), 이진유(李眞儒, 1669-1730), 이진검(李眞儉, 1671-1727), 윤성시(尹聖時, 1672-1730)와 함께 연구시를 반복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에 따라 곤륜 연구시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으로 진실한 교유 관계를 기반으로 시가 창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시 서두에는 모임의 시공간적 배경 및 친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므로 작품을 통해 시우(詩友)와의 교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김희자(2015), 「조찬한, 조위한, 권필이 함께 수창한 聯句詩 고찰」, 『인문학연구』 99,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70.

(1)

禁掖相逢夕	대궐에서 상봉해 서로 많은 얘기 나누며
窮陰釀雪花 邵	겨울날 눈꽃으로 빚은 술 마시네(李世德)
昏催九門鑰	황혼이 재촉하니 대궐 문 닫아걸고
風定一林鴉 孝	바람 잠잠해 온 숲에는 까마귀 있네(崔昌大)
臍發寒威重	찬바람 불어 추위 매서운데
依微月影斜 始	어렴풋한 달 그림자는 기울었네(李肇)
詩情燃蠟燭	시정 자아나 촛불 타버리니
酒興岸烏紗 和	술 흥취에 오사모 젖혀 쓰네(宋正明) ²²⁾

... (후략) ...

이 작품은 1707년 무렵 겨울밤 춘방에서 지은 64구의 연구시로 곤륜을 비롯해 백소(伯邵) 이세덕(李世德, 1662-1724), 자시(子始) 이조(李肇, 1666-1726), 자화(子和) 송정명(宋正明, 1670-1718)이 함께 창작한 것이다. 모인 지식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세덕·이조·송정명은 모두 소론이라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세덕은 소론 이돈(李墩)을 변호하고 스승 윤증(尹拯) 부자 일로 상소를 올려 유배되는 일을 겪을 정도로 당색이 강했으며, 이조는 1721년 임인옥사(壬寅獄事)를 다스려 노론 4대신을 축출하는데 참여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송정명 역시 윤증을 소환하고 송시열(宋時烈)을 핍박하는 상소를 올린 인물이라는 점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 소론계 지식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연구시 서두 부분을 살펴보면, 이들이 모여 앉아 시를 주고받는 즐거움이 시적으로 형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시는 창작 과정에서 앞서 제시된 구절에 성물과 대우 그리고 의미적 맥락을 통일시킴으로써 한 편의 작품을 만드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하기에²³⁾ 그와 같은 면모

22) 崔昌大, 『昆侖集』 권5, <冬夜春坊聯句會者李伯邵世德李子始肇宋子和正明>.

23) 최석원(2014), 「聯句 창작을 통해 본 宋代 문인의 문학적 교유」, 『중국어문논역총

가 잘 드러나 있다. 1~2구는 겨울날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상황을 담아낸 것이며, 3~4구는 숲 속 까마귀도 모두 숲으로 돌아가는 황혼이 내린 시간적 배경을 읊어 모임이 늦은 밤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5~6구 역시 계절적 배경과 시간의 경과를 시적으로 구현했기에 앞 구절과의 유기적 서사가 잘 구현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7~8구에서는 이들이 함께 모여 시정을 발휘하며 풍취를 향유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기에 곤륜이 연구시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며 시우(詩友)와의 유대관계를 구축했다고 여긴다.

(2)

小集春坊夜	밤 든 춘방에 작은 모임 있어
燈前共笑談 始	등불 앞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네(李肇)
朋簪相對六	벗 여섯 사람 마주했는데
更鼓已催三 珍	새벽 알리는 소리 삼경을 재촉하네(李眞儒)
闕角寒星動	대궐 주녀에 찬 별 움직이고
城隅缺月含 孝	성 모퉁이와 조각달 합치되네(崔昌大)
歡情酒後爛	즐거운 마음 술 마신 뒤 무르익고
詩意雪中酣 和	시의 뜻은 눈 속에서 흥겨워지네(宋正明)
衰職多君補	임금님께서서 훌륭한 그대들 임명해
文場許我參 約	문단에서는 내가 참여하는 것 허락했네(李眞儉)
興濃吟到苦	흥취 농후해져 괴로움을 읊조리니
交淡戒存甘 威	담박한 사귄은 달게 여감을 경계하네(尹聖時) ²⁴⁾
... (후략) ...	

이 작품은 밤에 춘방에 모여 지은 72구의 연구시로 1707년 무렵 창작

간』 41, 중국어문논역학회, p. 15.

24) 崔昌大, 『昆侖集』 권5, <春坊夜集聯句會者子始子和及李士珍眞儒李仲約眞儉尹季成聖時>.

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인 지식인으로는 곤륜을 포함해 자시(子始) 이조(李肇, 1666-1726), 자화(子和) 송정명(宋正明, 1670-1718), 사진(士珍) 이진유(李眞儒, 1669-1730), 중약(仲約) 이진검(李眞儉, 1671-1727), 계성(季成) 윤성시(尹聖時, 1672-1730) 총 6명이다. 개별 지식인을 살펴보면 앞서 확인한 이조·송정명을 비롯해 이진유 역시 소론의 영수 윤증을 비난한 이들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삭출되고, 신임사화 때 노론의 4대신을 탄핵하여 이들을 제거할 정도로 강경한 소론 지식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진검도 노론을 탄핵하다가 밀양에 유배된 바 있으며 신임사화 당시 노론 축출에 가담한 소론계 인물이며, 윤성시 역시 신임사화 때 가담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모임이 소론이라는 유사점을 근간으로 함을 볼 수 있다.

작품 1~4구에는 이들이 춘방에서 작은 모임을 가진 경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며, 구성원의 수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결속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6구에는 시간적 배경에서 파생된 광경이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7~8구에는 술을 마신 후 시적 흥취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9~10구에 이르면 시상이 일부 전환되는데 이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임금의 은택임을 강조함으로써 결집 취지를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11~12구에서는 짙은 흥취 속에서 시를 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윤성시는 이 같은 교유를 담박하다고 표현함으로써 모임의 청빈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 역시 실질적으로 모인 지식인이 모두 소론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동질적인 집단의식을 기저로 형성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연구시는 지식인 간의 교유를 체현한 또 다른 형태의 작시법이라는 점에서 미학적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교유의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²⁵⁾

25) 최석원(2014), 「聯句 창작을 통해 본 宋代 문인의 문학적 교유」, 『중국어문논역총간』 41, 중국어문논역학회, p. 19.

(3)

末路知心少 孝	만년에 마음 알아주는 이 적으나(崔昌大)
神交子與余 益	그대와 내가 정신적 교유해(李夏英)
雷陳又今世 益	뇌의와 진중의 사귄 이 세상에도 있으니(李夏英)
膠漆更誰如 敍	교칠의 우정 다시 누가 이만하겠는가(崔守範)
幾共城西酌 敍	몇 번이나 함께 성 서쪽에서 술 마셨던가(崔守範)
頻聯野外裾 孝	자주 야외에서 옷깃 끌었네(崔昌大) ²⁶⁾

... (후략) ...

이 작품은 80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708년 겨울밤에 창작한 것으로 연구 창작 참여 지식인은 곤륜을 포함해 익지(益之) 이하영(李夏英, 1674-?), 군서(君敍) 최수범(崔守範, 1690-?) 총 3명이다. 여타 작품을 통해서도 곤륜과 이하영이 시로 교유하고²⁷⁾ 서신을 주고받으면서²⁸⁾ 깊은 친분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곤륜의 종질(從姪)인 최수범과의 교유 관계 역시 서신과 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²⁹⁾ 시를 살펴보면, 1구에서 곤륜이 만년에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적다라는 구절을 작시하자 2~3구에서 이하영이 신교(神交)라는 시어를 사용해 정신적인 사귄의 경지를 드러냄으로써 시상을 이어나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한(後漢) 시기 교분이 깊었던 대표적 인물인 뇌의(雷義)와 진중(陳重)

26) 崔昌大, 『昆侖集』 권5, <冬夜同益之範姪聯句>.

27) 崔昌大, 『昆侖集』 권1, <歸到松京路遇李益之夏英書贈>; 권2, <題益之驪江詩卷>; <同益之李弟載大夏坤遊松都朴淵>; 권3, <寄益之>; <從益之乞寫鏡湖圖>; 권4, <次益之>; 권5, <逢益之>; <雪天夜飲. 送益之還高峰>; <夜坐次益之韻>; <和益之寺中韻>; <次益之天柱寺韻>; <示益之>; <次益之韻>; <月夜攜益之諸君訪天柱寺仍登西將臺>; <同益之賦雪得佳字>; <舟中憶益之用前韻>; <芳隣益之新寓鄰舍>; <夕雨中悄然獨坐率口成章寄益之>.

28) 崔昌大, 『昆侖集』 권12, <答李益之>; <答李益之>; <答李益之>; <答李益之>; <答李益之>; <與李益之>.

29) 崔昌大, 『昆侖集』 권5, <答從姪守範獻贈>. 권13, <答從姪守範>. 권16, <祭從姪守範文>.

을 인용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들과 같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최수범이 작시한 4~5구를 통해서도 교칠처럼 굳은 우정을 나누며 술자리에서 함께 교유해온 사실이 드러난다. 특히 이 작품은 내용에서도 교유의 깊이가 드러나지만 한 사람이 출구를 창작하면 다른 사람이 대구와 출구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결속력이 더욱 잘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작시 과정 속에서 출구와 대구 두 구를 연달아 짓지 않는 방식이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를 창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적 재능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진정한 교분을 바탕으로 했기에 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 명이 작시한 것처럼 내용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곤륜 연구시의 두 번째 특징을 확인해보면, 연작시 작시 시점이 만년에 집중되어 있어 속세를 벗어나 한가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품에 표출되어 있으며 담박한 교유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1)

... (전략) ...

平生喜雌伏 益	평생에 은거하는 것 기뻐했으니(李夏英)
早晚拔茅茹 敍	머지않은 시기에 동료들과 함께 하겠네(崔守範)
詞賦淹彭澤 敍	도연명이 읊은 사부 탐했으니(崔守範)
田樵愧孟諸 孝	맹자에서 밭 갈고 나무하던 이에게 부끄럽네(崔昌大)
江湖余樂也 孝	강호는 나의 즐거움이니(崔昌大)
吾黨盍歸歟 益	우리 무리들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李夏英) ³⁰⁾

(2)

... (전략) ...

晚途期共勉	만년에 함께 권면하기로 약속했으니
榮進庶無婪 和	영달함을 탐하는 마음 거의 사라졌네(宋正明)

30) 崔昌大, 『昆侖集』 권5, <冬夜同益之範姪聯句>.

促膝清歡洽	무릎 맞대고 앉아 맑게 기뻐하다가
撚髭苦思覃 約	수염 꼬며 괴로운 생각에 빠져(李眞儉)
據梧仍不寐	궤안에 기대어 잠 못 이루니
自笑爾何愁 成	우습구나 어리석은 것 어찌하겠나(尹聖時) ³¹⁾

작품 (1)은 <겨울밤에 이하영 최수범과 함께 연구를 짓다>(冬夜同益之範姪聯句) 59~64구를 발췌한 것으로 이 시를 통해 보았을 때 함께 작시한 지식인들 모두가 은거하며 강호에서 자족하는 삶을 지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1구에는 이들이 도연명의 삶과 문학세계를 추구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 실제로 곤륜이 도연명을 스승 삼은 바 있으며³²⁾ 시 작품 안에서도 도연명을 언급했으므로³³⁾ 자연에서 자적하며 작시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맹저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이에게 부끄럽다고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 세속에 매어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2)는 <춘방에서 밤에 모여 연구를 짓다>(春坊夜集聯句)의 마지막 부분인 67~72구를 발췌한 것이다. 이들이 만년에 서로 권면하며 담박한 사림을 이어나갔으며, 세속의 영예를 쫓지 않는 태도를 견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시 창작 시기가 모두 만년에 해당함으로 대체로 비슷한 정조를 근간으로 한다는 특징이 포착된다.

世間眞樂是閑居	세간의 진정한 즐거움 바로 한가롭게 사는 것이니
喫飯穿衣得自如	밥 먹고 옷 입으며 자유롭게 지내네
有病謝還生面客	병이 있으니 얼굴이 낯선 객 되돌려 보내고
無官闕遍舊藏書	관직 없으니 옛 장서들 두루 살펴보네

31) 崔昌大, 『昆侖集』 권5, <春坊夜集聯句>.

32) 김영주, 「곤륜 최창대의 수사론 연구」,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학회, 2003, p. 132.

33) 崔昌大, 『昆侖集』 권2, <西齋>; 권3, <到金城留贈朴使君直卿>; 권5, <盆菊>, <酒席聞歌妓唱陶詞感而賦之>, <送李士珍仲約遊楓嶽>.

一庭新竹紅塵外	홍진 세상 밖 뜰 가득 새로 자란 대나무 있고
千樹涼蟬小睡餘	잠깐 잠든 사이 온 나무에는 가을 매미 있네
傳語數君同此意	말 전하노라 이 뜻 함께하는 그대들
課詩評茗莫相疎	시 짓고 차를 품평하며 서로 소원해지지 말게나 ³⁴⁾

이 작품은 <한거>(閑居)로 1714년 46세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연구시와 마찬가지로 한적한 생활에서 비롯된 자유로움이 시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세속에서 벗어난 자연의 맑은 운치가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삶에 대한 지향은 연구시의 특징인 동시에 곤륜의 여타 만년 작품에서 포착되는 집중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수련 부분에는 곤륜이 규정한 진정한 즐거움(眞樂)이 드러나 있고 한가한 삶에 대한 예찬이 담겨 있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미련 부분에서 곤륜은 뜻을 함께 하는 이들에게 ‘과시’(課詩)와 ‘평茗’(評茗)을 지속하며 교유하기를 권하고 있는데, 앞서 연구시에서 확인한 바 있는 담박한 교유 추구 양상이 이 시에서도 포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3. 동일 공간 유람에서 비롯된 흥취의 공유

곤륜 문집에는 유람시가 다수 포착되는데, 이 장에서는 여타 지식인과 함께 동일 공간을 유람하며 창작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삼아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품은 작시 과정에서 일정부분 정서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창작되었기에 교유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제가 주로 ‘동~’(同~), ‘~동~부’(~同~賦), ‘동~유’(同~遊)의 형식을 띠고 있어 교유 인물과 창작 경위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제를 도표화 해보면 아래와 같다.

34) 崔昌大, 『昆侖集』 권5, <閑居>.

[표 3] 곤륜 최창대의 동반 유람시 목록

순번	교유 지식인	관향	제목	수량	형식	권 수
1	李寅燁	慶州	同季舅遊楓嶽到平丘得通字	1	五言律詩	권2
2			少憇松下同舅氏賦	1	五言排律(18구)	
3			同舅氏登城譙	1	七言律詩	
4			客中秋思同舅氏賦	3	七言律詩	
5			同舅氏夜賦	1	五言排律(48구)	
6	李夏英 李夏坤	全州	同益之李弟載大夏坤遊松都 朴淵	2	五言律詩	권2

위 표를 기반으로 확인해보면, 시제에 동행자와 유람 내역이 대략 명시되어 있으므로 곤륜이 이인엽(李寅燁, 1656-1710)과 금강산을 방문했고 이하곤(李夏坤, 1677-1724) · 이하영(李夏英, 1674-?)과 함께 송도(松都) 박연(朴淵)을 다녀왔음을 알 수 있다. 유람 시기가 각각 1691년(23세)과 1697년(29세)에 해당하므로 비교적 젊은 시절 시인이 느낀 정취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특정 지식인과의 집중적인 교유가 드러나므로 작품 분석을 통해 특징적인 면모를 포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高樓迢遞絕塵埃	우뚝한 누대 높이 솟아 먼지 티끌 전혀 없고
霽後雲煙萬里開	비 개인 뒤 구름 안개 만 리에 열렸네
九郡地臨滄海盡	여러 고을 땅이 임한 곳 창해에서 다하고
羣山勢自白頭來	뭇 산들의 기세 백두산에서부터 왔네
城譙日隱棲鴉定	성문에 해 지니 까마귀 깃들고
關塞風高候鴈哀	변방에 바람 높아 기러기 소리 애달프네
却喜同君桑落酒	그대와 함께 상락주 마시니 도리어 기쁘지만
教人不上望鄉臺	망향대에 오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는구려 ³⁵⁾

35) 崔昌大, 『昆侖集』 권2, <同舅氏登城譙>.

위 시는 <이인엽과 함께 성초에 올라 짓다>(同舅氏登城譙)라는 작품이다. 이 시기 곤륜은 이인엽(李寅燁, 1656~1710)과 동행해 산수를 다녔기에 유람 과정에서 작시된 작품 곳곳에는 교유의 흔적이 남아 있다. 기구와 승구는 시야에 포착된 원경을 그려낸 것으로 비 개인 뒤 확 트인 맑은 풍경을 읊는 동시에 바다까지 펼쳐진 땅과 백두산의 기세를 타고 내려온 산들을 담아낸 것이다. 전구에서는 시간적 배경과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당시 풍경을 드러냈음을 볼 수 있다. 결국에 이르러 곤륜이 이인엽과 상락주를 마시며 흥취를 나눈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일 공간에서 행해진 유람은 이들의 교유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間路洪陽北	길을 물으니 홍양 북쪽이라 하여
悠悠歷山阪	하염없이 산 비탈길 지나는데
山深水益清	산 깊어질수록 물 더욱 맑으니
忽欲成嘉遯	홀연히 은거하고 싶어지네
松亭面陽郊	송정이 남쪽 들 향해 있으니
茂林留翠幃	울창한 숲에는 푸른 빛 둘러싸여 있네
深意在濠梁	깊은 뜻 호랑에 있으니
遐期說劉阮	훗날 기약하며 유영·완적을 말했네
勞生信多方	삶 고달파도 다방면으로 알고자하니
探勝寧辭遠	승경 찾음에 어찌 먼 길을 마다하라
風涼樹根眠	바람 서늘해 나무 밑동에서 잠들었다가
濯手川上飯	손 씻고 냇가에서 밥을 먹네
雞鳴驛舍幽	닭 울음소리 역사 그윽한 곳 까지 들려오는데
蟬歇秋山晚	매미 소리 그치자 가을 산 깊어지는 구나
樵歌互低昂	나무꾼이 노래 소리 낮췄다 높였다 하니
羊羶各已返	양과 송아지 떼가 각각 집으로 돌아가네
白雲多暮色	흰 구름 저물녘 빛깔 포개지는데
送我越蒼巘	나를 전송하려 푸른 봉우리를 넘었구나 ³⁶⁾

위 작품은 <소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며 이인엽과 함께 읊다>(少憩松下同舅氏賦)라는 제목 아래 18구로 구성된 시이다. 1~4구에는 승경을 찾아 산 비탈길을 지나가는 여정이 그려져 있으며 깊은 산의 맑은 정취가 담겨있다. 또한 곤륜이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읊을 정도로 산수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시에 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5~6구는 울창하고 푸른 숲의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소나무 정자에서 쉬며 바라본 풍경을 담은 것이다. 7~8구에 이르면 곤륜은 전고를 활용해 이인엽과의 교유를 언급했는데, 호랑(濠梁)에 뜻을 두었다고 한 것은 장자(莊子)와 그의 친구 혜자(惠子)의 사귀를 인용해 속세를 떠나 자연에 동화된 상태의 차원 높은 교분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죽림칠현(竹林七賢)으로 일컬어지는 유영(劉伶)과 완적(阮籍)을 언급해 훗날 자유분방한 교유를 이어갈 것을 기약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곤륜의 산수취향이 잘 드러나 있는데, 9~10구를 통해 그가 적극적인 태도로 승경을 찾아 나섰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미적 성취 측면에서 풍경의 장면화가 잘 구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에서 곤륜은 유람을 통해 산수 지취를 발현하는 동시에 교유 지식인과 시적 흥취를 나누며 자신의 심회를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擾擾塵世間	어지러운 풍진 세상 속
人生誰得閑	인생에서 누가 한가로움 얻겠는가
秋風出門去	가을바람에 문을 나서서
匹馬訪名山	필마로 명산을 찾아가네
海色雲鴻暮	바다 빛깔 하늘에 기러기 아득하고
林光露菊斑	숲속 광채 이슬 젖은 국화에 아롱지네
同來二三子	몇몇 벗들과 함께 와서
吟嘯各忘還	길게 읊조리니 저마다 되갈 것을 잊는 구나

36) 崔昌大, 『昆侖集』 권2, <少憩松下同舅氏賦>.

往者觀濤約	지난날 물결 보기로 약속하고
今朝出郭行	오늘 아침에서야 교외로 나왔으니
騎驢攜阮籍	나귀 타고 완적처럼 가고
具酒速淵明	술을 구해 도연명이 되고자 하네
落日川原迥	해 떨어지자 시내와 언덕 아득하고
秋霜郡邑清	가을 서리에 고을 풍경 맑네
前程忘遠近	앞 길 먼지 가까운지도 잊었으니
吾意自無營	내 뜻을 경영할 필요 없다네 ³⁷⁾

이는 ‘동~유’(同~遊) 형태의 제목으로 창작된 2수 연작시로 1697년에 이하곤(李夏坤, 1677-1724) · 이하영(李夏英, 1674-?)과 함께 송도 박연을 유람하고 지은 시이다. 이하곤은 앞서 살펴본 이인엽의 맏아들로 곤륜과 대대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하영 역시 시적 교유를 지속한 대표 지식인 중 한 명으로 곤륜 집안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된다.³⁸⁾ 첫 번째 작품에는 가을날 명산을 찾아 떠나는 이들의 여정이 그려져 있다. 곤륜은 유람을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정취를 만끽하고 ‘망환’(忘還)의 경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곤륜을 비롯해 같은 풍취를 만끽한 이들의 교유는 자연과 합일되는 경지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을 통해서도 교유 관계 측면에서 이들이 이전부터 유람을 약속하고 이행하면서 친분을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하곤은 적극적으로 산수 유람을 애호한바 있으므로³⁹⁾ 문예 지향점이 일치

37) 崔昌大, 『昆侖集』 권2, <同益之李弟載大遊松都朴淵>.

38) 이하영은 곤륜의 손자인 崔守哲(1683년~1712)과도 교유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崔守哲, 『清泠子遺稿』 上, <寄李益之>, <前溪憶載大益之>, <贈李益之>, <同益之次杜律韻>. 下, <懷益之>, <贈益之>, <次東臯韻寄益之>.

39) 李夏坤, 『頭陀草』, 16책, <息影亭記>, “余素性甚迂, 無他嗜好. 獨好山水, 自八九歲時, 已有山棲之志.” 윤성훈, 「澹軒 李夏坤, 산수 애호와 문예 지향의 삶」, 『태동고전연구』 24집, 2008, p. 174.

되면서 교유가 더욱 심원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시에는 이들이 추구했던 이상적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곤륜은 죽림칠현 중 한 명으로 얹매임 없이 살았던 완적과 자연과 합일된 삶을 살았던 도연명의 자유분방함을 동경한 것으로 보인다.

水驛蒼蒼暮	물가 역참 푸른 연기 속에 잠기고
淸蟬亂樹風	맑은 매미소리 온 숲에 울리네
樵帆德津北	돛단배 나루 북쪽으로 가고
客路漢湖東	객로는 호수 동쪽에 있네
衆嶽園陵接	뭇 산들 원릉과 접해 있고
長江郡邑通	장강은 군읍과 통하네
亭臯餘物色	누대 언덕에 물색이 남아있어
臨眺憶盧翁	정치 바라보며 노승(盧嵩)을 떠올리네 ⁴⁰⁾

이 시는 1691년 이인엽(李寅燁)과 함께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하고 평구(平丘)에 이르러 지은 작품이다. 전반적으로 해당 공간에서 바라본 풍경이 시로 형상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이인엽과의 교유 내력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동일 공간에서 함께 같은 광경을 마주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미련 부분을 통해 곤륜이 위응물(韋應物)의 <여름밤에 노승을 떠올리다>(夏夜憶盧嵩)⁴¹⁾ 작품 시제를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 곤륜이 위응물의 시를 애송(愛誦)한바 있으므로⁴²⁾ 그의 시적 경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40) 崔昌大, 『昆侖集』 권2, <同季舅遊楓嶽到平丘得通字>.

41) 韋應物, <夏夜憶盧嵩>, “靄靄高館暮, 開軒滌煩襟. 不知湘雨來, 瀟灑在幽林. 炎月得涼夜, 芳樽誰與斟. 故人南北居, 累月間微音. 人生無閑日, 歡會當在今. 反側候天旦, 層城苦沉沉.”

42) 崔昌大, 『昆侖集』 권5, <寄贈晦隱丈蘇坡江居>, “平生愛誦韋詩, 寄全椒道人四句, 昨來早起, 積雪滿山, 興懷高韻, 杳然有山陰之思, 聊演韋詩之意奉呈, 兼以酒一尊蟹十甲, 用佐一日吟哢之趣耳.”

전원산림의 고요한 정취를 만끽하는 동시에 동행한 지식인과 함께 흥취를 시적으로 구사했음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3. 맺음말

이 글은 곤륜 최창대 교유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지식인들과의 교유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필자는 첫 번째로 송시·증시 작품을 통해 교유 인물 상당수가 소론계 지식인에 해당하며, 드물지만 노론을 비롯해 중인과의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수신자가 중첩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넓은 범주에서 교유했음을 파악한 바 있다. 추후 후속작업으로 만시까지 다뤄 교유시의 범주를 넓히는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직접적 친분 없이도 작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시 작품을 내용별로 분류해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비롯해 외직에 부임되거나 사신의 임무로 연경·일본으로 떠나는 이를 전송한 작품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배 가는 것을 전송하거나, 유람 가는 이 혹은 승려에게 준 작품도 포착했다. 작품 분석 결과 시적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에 따라 곤륜이 친밀한 교유 관계를 바탕으로 작시한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곤륜이 지식인들과 수창하며 연구시를 창작해 시적 교유를 시도했음을 확인했다. 연구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인들의 결집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론이라는 당색의 동질성을 기저로 했다고 해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지식인이 지닌 문학적 지향 세계의 공통점을 논의하기에는 선행연구가 미비하므로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나, 친인척이거나 동년배에 해당하는 지식인 간에 작시가 이뤄

졌으며 시기적으로 연구시 작시 시점이 만년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했을 때 평소 맺어 온 친분이 모임 결성의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들은 담박한 교유를 지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시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주로 연구시를 유희의 수단으로 삼아 작시 과정에서 파생되는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시를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사물인 벼루를 시제로 한 <석연연구삼십이운>(石硯聯句三十二韻) 작품 역시 문인의 아취를 반영한다는 점에서⁴³⁾ 이들이 친밀감을 토대로 작시했음을 짐작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구시 작시 양상의 원인을 명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필자는 연구시의 근원을 부친 최석정(崔錫鼎)의 작시 경향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최석정의 작품에서도 연구 창작 현상이 빈번하게 포착되기 때문이다.⁴⁴⁾ 그 외에도 소론 지식인에 해당하는 남용익(南龍翼, 1628-1692),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의 시에서도 연구시가 자주 포착되므로 소론계의 작시 양상이라고도 여겨지나, 이 같은 논의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동일 공간 유람에서 비롯된 흥취의 공유 양상을 고찰하였다. 동반자가 명시된 유람시가 포착되므로 그 같은 양상을 추적해 특징적 면모를 추출하고자 했다. 이에 곤륜이 교유 지식인과 유람을 기약하고 이행하는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동행하며 산수 지취를 공유한

43) 최석원(2014), 「聯句 창작을 통해 본 宋代 문인의 문학적 교유」, 『중국어문논역총간』 41, 중국어문논역학회, p. 14. 宋代 창작된 聯句詩 가운데 벼루, 돌, 학 등과 같은 사물을 聯句의 소재로 삼은 것은 이러한 당시 문인들의 아취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44) 崔錫鼎, 『明谷集』 권1, 「焦尾錄」, <玉硯滴聯句同李壽翁世龜李伯吉賦>, 권2, 「甲乙錄」, <次諸學士禁中聯句>, 권2, 「礪江錄」, <江漢聯句>, 권2, 「西曹錄」, <禁直聯句>, 권3, 「椒餘錄」, <風俗通聯句五十韻>, 권3, 「丁戊錄」, <斜字聯句>, <陽字聯句>, 권4, 「鹽城錄」, <洪慶源九言宅夜酌聯句>, <別滄浪聯句>, 권4, 「後閑居錄」, <明谷聯句別星山吳使君>, <用聯句韻別趙晉州祥甫>, <次聯句送趙德而>, 권5, 「文衡錄」, <直廬蒙霑宣醢聯句>, <貫之宅聯句>, 권5, 「蔗回錄」, <北征聯句>.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함께 유람한 이하곤의 경우 곤륜이 ‘지음’(知音)이라고까지 일컬은 바 있으므로⁴⁵⁾ 이들의 교유가 깊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곤륜의 유람시는 산수 지취의 발현을 통한 미적 성취를 이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지만, 교유 지식인과 함께 흥취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심회를 토로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교유시에 대한 연구가 곤륜 시세계의 일부를 조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교유 양상을 조망하면서도 작품 자체가 가지는 시적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했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미시적 연구의 축적을 통해 최창대의 문학세계가 다방면에서 연구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45) 김영주, 「곤륜 최창대의 수사론 연구」, 『東方漢文學』 24집, 2003, p. 118.

참고문헌

【자 료】

崔昌大(1997), 『昆侖集』, 한국문집총간 183, 민족문화추진회.
洪世泰(1730), 『柳下集』, 한국문집총간 167, 민족문화추진회.
李夏坤(未詳), 『頭陀草』, 한국문집총간 191, 민족문화추진회.
崔守哲(未詳), 『淸冷子遺稿』, 한국문집총간 속 65, 민족문화추진회.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논 제】

권진옥(2018), 「곤륜 최창대의 문장론 연구」, 『동양고전연구』 74, 동양고전학회.
김영주(2003), 「곤륜 최창대의 수사론 연구」,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학회.
김희자(2015), 「조찬한, 조위한, 권필이 함께 수창한 聯句詩 고찰」, 『인문학연구』 99,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성범중(2010), 「곤륜 최창대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4, 한국한시학회.
유호선(2002), 「17C 후반~18C 전반 경화사족의 불교수용과 그 시적 형상화 : 김창흡, 최창대, 이덕수, 이하곤, 조귀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재환(2018), 「성호학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지식 집단의 형성과 변모의 한 양상」, 『고전과 해석』 26, 고전문학한문학회.
이황진(2017), 「약천 남구만의 유배시 연구」, 『韓民族語文學』 75, 한민족어문학회.
최석원(2014), 「聯句 창작을 통해 본 宋代 문인의 문학적 교유」, 『중국어문논역총간』 41, 중국어문논역학회.

원고 접수일: 2018년 12월 28일

심사 완료일: 2019년 2월 8일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11일

ABSTRACT

A Study of Gollyun Choe Changdae's Friendship Poems: Focusing on Social Associations with Intellectuals

Kim, Myo Jung*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the social associations between intellectuals based on the study of social association poems written by Gollyun Choi Changdae.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at true social associations can be found in the poems of praise. Gollyun seems to have composed poems based on a close relationship. Secondly, the signs of poetic communication among poetical friends through meetings could be confirmed. Gollyun composed Chinese poetry using antithesis while singing poetries with intellectuals, who were of Soron origin. Moreover, most of the poems had been written in his later years, at a time when he preferred frank social associations. Thirdly, this study explored how excitement from sightseeing a common place was shared. Gollyun maintained an active attitude in promising and actually going sightseeing with his intellectual friends, and shared experiences of the landscape with his companions.

* Research Aide,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HK+ Research Center, Dankook University

